

(주)팜스코

## 7월 사료 판매량 신기록을 세우다!



2015년 “The Year of 1,000,000 tons” 라는 슬로건 아래 (주)팜스코 사료사업본부가 100만톤 사료판매 달성을 향한 멋진 도전을 하고 있다.

고객의 성공을 위하여 이 뜨거운 여름, 현장을 누비며 흘렸던 땀방울이 “7월 85,000톤 신기록 달성”이라는 결실을 가져다 주었다.

이러한 결실을 맺기까지는 팜스코의 가치를 알아주는 No.1 파트너이신 고객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를 기념하기위해 팜스코 중부공장에서는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김승구 중부영업본부장은 “고객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임을 명심하고, 고객에게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객의 생산성/수익성 개선 활동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팜스코 사료를 사용해 온 고객 농장의 성공을 위해 지금까지 일해온 것보다 더욱 더 정진할 것을 참석한 직원들에게 강조하였다.

(주) 팜스코 정학상 대표이사는 이러한 성장의 비결에는 “고객과 함께 하고자 하는 우리의 진심이 고객들과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졌고, 이 분들의 꾸준한 사랑과 신뢰가 바탕”이었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생산된 축산물이 합리적이고 위생적인 유통 단계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이 팜스코의 의무이자 책임임을 인식하고 국내 축산물의 가치 증진과 소비 촉진에도 앞장설 것이며,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activity campaign”을 통해 농장의 생산성 향상의 현장 노력과 경영 개선 활동을 꾸준히 실시하여 고객 농장과 동반성장하는 팜스코의 길을 계속 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주)팜스코는 2015년 사료판매 100만톤 달성을 향해 앞으로도 고객에게 최고품질의 사료와 생산성 개선을 위한 가치활동의 전개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 활동을 제공하여 고객의 No.1 파트너가 될 것을 다짐했다. ☺

## CJ제일제당, 베트남 동나이 공장 준공식 가져 CJ의 뛰어난 사료·축산 노하우를 널리 알려



CJ제일제당 생물자원 사업부문(대표 유종하, 이하 CJ)이 7월 21일 베트남 4번째 생산거점인 동나이 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CJ 임직원을 비롯하여 박노완 대한민국 호치민 총영사, 베트남 동나이 부성장 및 농림부 축산국 부국장 등 현지 관계자 1,500여명이 모여 성공적인 준공을 축하했다. 동나이 공장은 2014년 3월 부지 약 80,000㎡, 건물 약 24,000㎡에 건설을 착수해 17개월이 지나 완공이 되었고, 연간 CAPA 27만 톤으로 양축, 양어사료를 생산할 예정이다.

동나이 공장 준공으로 인해 CJ 베트남 사업부는 베트남 축산 농가에 신선한 사료를 더욱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동시에 인도차이나반도 사료 수출을 위한 교두보까지 마련했다. 현재 CJ는 2001년 베트남 룡안 사료공장 건설을 시작으로 흥옌, 빈롱, 동

나이까지 베트남 내 4개의 사료생산거점을 확보하여 사료사업부, 계열화, 경영지원, R&D센터 등에서 1,300명의 우수한 인력으로 베트남 축산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14년 3,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CJ만의 뛰어난 품질력을 인정받았으며, 양돈, 육계, 양어 등의 축종 사료 판매에 국한하지 않고 신규 축종까지 확대하여, 베트남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접 국가까지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선강 CJ 베트남사업담당은 “이번 동나이 공장 준공으로 베트남 지역에 원활한 제품 공급과 최신 기술로 사양가에게 보다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게 되었다. CJ는 앞으로도 한국의 선진 사료/축산 기술 및 노하우를 베트남에 지속적으로 전파해 한국 축산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